

연계등정

LG電線(株), 해외사업 강화

LG電線(株)(代表 : 權炆九)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라는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길은 수출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수출 목표를 조정하는 등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걸기로 했다.

이를 위해 LG전선은 이번 '98년 정기 조직개편에서 경영위기를 타파하고 해외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해외사업단을 발족시켰다.

해외사업단은 기존 사업부 조직과는 별도로 권문구 사장을 단장으로, 각 사업부문과 지원부문의 임원이 해외사업단 위원이 되고 해외사업 담당 임원은 간사가 돼 중·장기 해외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지원부문과 기존 조직의 인력을 해외부문으로 전진 배치함으로써 인원과 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LG전선의 이 같은 결정은 저성장과 산업구조 등을 조건으로 IMF의 지원 자금을 받기로 함에 따라 신규 투자가 유보되고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등 주요 산업의 시장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해외부문에서 매출을 만회하

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려운데다 때마침 환율도 수출 증대에 이롭게 작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결정은 또 전선산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고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세계 어느 나라나 지역에 기반을 둔 자국 중심의 성격이 강한 사업인데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예산 감축과 건설 경기의 위축 등 내수 시장의 기반이 약해짐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전선 해외사업단은 해외사업 전략 수립 외에도 필요한 해외정보를 수집해 분석, 제공하고 외환운영, 해외구매 등 해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정책을 사안별로 심의,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G전선은 설비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부자재의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 구매에 따른 지불 조건도 달러화가 아닌 다른 화폐로의 지불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외화 절감책을 추진키로 했다.

大韓電線(株), 정보통신 전제품 ISO 9001 획득

大韓電線(株)(代表: 兪彩濬)가 시흥정보기기 공장에서 생산하는 교환 및 전송장비등 정보통신 전제품에 대해 ISO인증을 취득했다.

세계적인 국제 품질 및 환경시스템 인증기관인 영국 SGS야슬리로부터 '93년 계전제품에 대한 ISO 인증을 취득한데 이어 이번에 정보통신제품에 대해서도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통신부문 ISO 인증 획득은 공장

조직외에 개발관련 조직에서 이미 개발완료된 장비와 현재 개발진행중인 장비 모두를 심사범위에 포함시켜 품질시스템을 수립하고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대외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선은 급격한 대내외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금년 하반기까지 안양, 시흥, 안산공장에 대해 획득할 방침이다.

利川電機(株), 新任 “金時均” 社長 就任

利川電機(株)는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신임 金時均 사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번의 조치는 3월에 三星電子에서 이천전기(주)의 지분을 완전 인수한 이후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경주하였고, 이에 한층더 회사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국면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신임 김시균 사장은 1970년 三星그룹에 입사하여 삼성전자(주) 관리담당과 삼성전기(주) 및 제일모직(주)의 기획관리본부장을 거쳐 '95년부터는 삼성할부금융(주)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전임 유희동(柳熙東) 사장은 고문으로 남아서 계속적으로 이천전기(주)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게 된다.